

가족 연구에서의 유형화 연구 고찰*

- 가정학 분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lication of Typologies in the Family Studies*

- Focused on Home Economics Major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수연구원 성미애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옥선화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l Univ.

Researcher : Sung, Miai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l Univ.

Professor : Ok, Sun Wha

◀ 목 차 ▶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ypologic methods in the Family Studies. For this goal, we reviewed literatures related to social research methodology, and analyzed articles in the Family Studies part on the basis of themes and typologic methods.

The major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

Typology methods used to clarify complex and subtle family phenomena and distinguish redundant interaction in everyday life. Especially, they can show family system type, communication mode style, leisure activity type, life attitude type, and personality traits type. Typology was made by the methods as follow: the insight, crossing the two single question, intersecting scale's mean or middle point, cluster analysis, and factor analysis. Typology is useful method in the Family Studies, but the accuracy standard needs in the future studies.

주제어(Key Words): 유형화(typology)

* 본 논문은 2002학년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I. 서론

1. 문제 제기

가족 연구는 인간의 일상생활, 나아가 가족원간의 역동적이며 미묘한 상호작용을 파악해야 하는 학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일상생활이나 가족원간 상호작용이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처럼 연속적이고 역동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가족현상을 인식하고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방법이 요구된다.

특히 현대 사회는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대변되는 후기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보였던 단일한 일차원적인 접근으로는 가족내 복잡한 매카니즘이나 다양한 개성을 발휘하는 가족 현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

이러한 사회 변화로 1980년대부터 가족학 연구에서는 주류가족(the family)이 보이는 가족 현상이나 문제에 국한해서 연구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가족 현상이나 문제에 초점(예: 김태현, 조희선, 1991; 박혜인, 1992; 신화용, 조병은, 1996; 정문자, 이미리, 1998; 허정원, 옥선화, 1998 등)을 두며, 연구 대상도 주부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남성(예: 김소영, 옥선화, 2000; 성미애, 1999; 이숙현, 1995, 1997; 한경혜, 1996 등), 노인(예: 김애련, 한내창, 1997; 김명자, 1982; 김효정, 김명자, 1995; 서병숙, 1989; 최정혜, 1992; 최혜경, 박성연, 1985 등), 청소년(예: 남현미, 1999; 이경주, 신호식, 1997; 최선남, 최의선, 1995 등) 등 폭넓게 선정해서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전에는 단일 범주로 조사했던 연구 대상도 가족체계유형(김정옥, 1995; 이천숙, 이희자, 1997; 이희자, 최수경, 1999; 전귀연, 최보가, 1993, 1995; 정민자, 1992; 최규련, 1994, 1998; 최연실, 1993), 의사소통유형(박은주, 김경신, 1995; 서수경, 이정덕, 1991; 이정순, 박성연, 1991; 이정우, 김규원, 1989; 이창숙, 유영주, 1988), 성역할 유형(김명순, 이주옥, 1988; 윤종희, 이인숙, 1993) 등 구체적인 개인 및 가족 특성에 따라 상이한 가족생활을 경험한다

는 것에 주목해서 단일 범주식 접근을 지양하고 이들 대상에서 보이는 다양한 차이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연구 방법 중의 하나는 연구 대상을 보다 유사한 특성을 가진 하위집단으로 유형화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즉 가족이라는 범주 내에서 보여지는 편차가 커감에 따라 다양한 가족을 하나의 범주로 파악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된다. 이러한 경우 단일 범주를 해체하고 유형화함으로써 연구 대상이 갖는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족생활은 잘 의식되지는 않지만 반복되는 특성을 가진 일상생활의 요체이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생활 모습을 유형화하게 되면 보다 간단하게 연구대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유형화하는 작업 자체가 현상을 환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극단화되는 경우에는 각 연구 대상이 갖는 구체적인 정보를 상실할 수 있다. 또한 유형화를 잘못하는 경우에는 두 유형에 걸쳐있는 중간 사례가 배제되거나 유사한 사례가 서로 다른 사례로 묶여 유형화되어, 실재하는 가족 현상을 왜곡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다양하며, 복잡한 가족 현상을 다차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유형화 작업의 의의 못지 않게, 어떤 연구 방법으로 유형화 작업이 이루어지며, 이렇게 도출된 유형들이 서로 배타적인 속성을 갖는지를 경험적으로 입증하는 연구방법에 대한 주목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 연구에서 유형화가 현상을 인식할 때 갖는 의미를 고찰한 뒤, 가족 연구에서 이루어진 유형화 연구를 주제 및 연구 방법으로 나누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가족 연구에서 유형화 연구가 갖는 의미를 고찰하면서 유형화 연구의 한계점과 전망에 대해서 논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가족 연구에서 유형화 연구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가족 연구에서 이루어진 유형화 연구의 주제 및 연구 방법은 어떠한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구명함으로써 다양한 가족 현상을 좀 더 간결하고 명료하게 파악하며, 다차원적인 가족 현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후속연구에게 연구방법상으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가족 연구에서 유형화가 갖는 의미를 고찰한 뒤, 가족 연구에서 이루어진 유형화 연구를 주제 및 연구 방법으로 분석하고, 유형화 연구가 갖는 한계점과 전망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법이다. 문헌 연구법은 연구자가 탐구해 보고 싶은 현상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문헌이 담고 있는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관심 있는 영역의 사회 현상에 대한 통찰을 얻고, 그에 관한 이론 검토, 가설 검증도 하고, 또한 어떤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실질적 연구 방법이다(김경동, 이은숙, 1994, 308).

따라서 문헌 연구법은 가족 연구에서 이루어진 유형화 연구 주제와 연구 방법을 고찰한 뒤 유형화의 전망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타당한 연구 방법이 된다.

이를 위해 먼저, 유형화와 관련된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과 관련된 문헌을 살펴본 뒤, 가족 연구에서 유형화를 사용한 연구들을 우선 관련 학회지 및 석,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분석한 학회지는 대한가정학회지, 한국가족관계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이다.

이러한 문헌 자료들을 토대로 어떤 변수들이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실제 유형화를 위해 사용한 연구 방법과 유형화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 방법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가족 연구에서 유형화 연구들의 의의 및 한계점을 제시한 뒤, 유형화 연구의 전망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II. 본론

1. 현상 인식 방법으로서의 유형화

모든 학문은 관심을 갖는 현상의 독특하고, 일반적이고 반복되는 측면을 인식할 수 있으면서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예측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즉 학문의 기능 중 하나는 다양한 현상 속에서 보이는 질서를 구축해 가면서 연구하는 대상의 변화 방향에서 예측력을 갖는 것이다. 특히 가족 연구의 경우 의식되지 않고 반복되는 일상생활의 가족 현상을 살펴보면,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하는 만큼 일견 무질서해 보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질서를 발견해 가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러한 학문적 의도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유형화이다. 유형화는 학문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선택된 것으로, 경험적인 연구 자료를 추상화하고 조합하여 경험적인 사례를 비교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McKinney, 1966, 3). 즉 유형화는 분절되지 않고 연속되어 나타나는 사회 현상을, 인식할 수 있는 연구 대상으로 만드는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형화는 사회과학이 시작될 때부터 사회분석 대상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유형화는 변수들의 차원과 상호관련성을 한꺼번에 고려하면서 어떤 개념의 지표를 얻어내고 지수화 하는 논리적 또는 경험적 절차(김경동, 이은숙, 1994, 346)로, 이런 속성 공간을 이용하면 연구의 첫 걸음인 연구 대상의 분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분석하고자 하는 속성의 차원을 줄이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

이 때 구분해야 하는 용어는 분류화(taxonomy)와 유형화(typology)이다. 분류화는 연구 대상을 구성하는 다양하고도 미분화된 각 사례들을 그들이 갖는 속성적 특징에 따라 범주를 구별하는 것으로, 구별을 우선적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즉 분류는 연구대상을 구성하는 각 사례들을 일정한 분석 기준에 입각하여 동질적인 범주들로 나누어 묶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분류는 연구 대상 속에서 이론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대표적인 변수를 분류 기준으로 삼아, 체계적인 기술과 설명을 시도하는 데 토대를 제공한다. 따라서 분류는 대표적인 한 가지 기준에 입각해서 연구 대상을 나눈다(이지훈, 1993, 155).

반면 유형화는 한가지 이상의 특성에 기초해서 대상을 분류하는 것으로, 단순한 범주화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대상을 범주화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한다. 즉 유형화는 연구 사례들을 비교하기 위해 일련의 기준에 따라 의도적, 계획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일정한 속성들에 대한 교차분류를 통하여 선택된다(Blalock, 1969, 30; 이지훈, 1993, 155에서 재인용).

이처럼 분류가 연구 대상을 단일한 기준에 따라 동질적이고 이질적인 집단으로 나누는 것이라면, 유형화는 자료를 어떤 한 유형에 집중시키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하는 목적에서 벗어나서 비교하고 예측하는 발견적인 특성을 갖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유형화는 일련의 특성으로 구성된 특별한 개념으로, 사례에 대한 기술에서 경험적 일반화 단계뿐만 아니라 이론적 체계를 구성하는 수단이 된다.

이지훈(1993, 159)은 유형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유형은 다양하고 복잡한 연구 대상이나 자료를 동질적인 기준으로 범주화함으로써 단순화한다. 둘째, 유형은 자료를 질서 있게 순서화함으로써 체계적인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셋째, 유형은 효과적인 조작적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넷째, 유형은 보다 분명한 기술적인 요약과 이해를 촉진한다.

또한 유형은 연구 대상을 기술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석과 설명을 하는 데에서도 유용하다. 즉 유형은 연구대상이 갖는 복잡한 개념 또는 변수 관계들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용이하게 하며, 새로운 개념, 정의 또는 가설 등을 유도하며, 기존의 개념, 정의 또는 가설 등을 수정하게도 한다.

결국 유형화 작업은 속성 범주의 모든 조합들 중에서 한정된 어떤 것을 다시 선택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범주 조합을 통합해서 재조합을 피하는 환원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각종 속성 범주들 간에 가능할 수 있는 조합들을 다시 묶어 분류하는 것으

로, 현상을 보다 간단한 수준으로 환원화 시키는 과정이 곧 유형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지훈, 1993, 175).

이러한 환원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는 기능적 환원법과 임의적 환원법이 있다(Lazarsfeld & Barton, 1951, 173-174). 기능적 환원법은 일련의 조합들을 만들어 내는 기본 속성들간의 실질적 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조합들을 묶는 것이다. 반면 임의적 환원은 조합을 만들어내는 속성들 각각의 중요성에 대한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해 지수화 함으로써 그들에 입각해서 조합을 묶는 것이다.

이처럼 유형화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족 현상을 인식 가능하게 특징적인 범주로 환원시키는 작업으로, 범주화하는 기준이 중요한 문제가 됨을 알 수 있다. 범주를 정립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범주는 연구문제 또는 가설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범주는 가능한 세분되어야 한다. 셋째, 범주는 서로 배타적이어야 한다. 넷째, 범주는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다섯째, 범주는 단일 분류 기준에 입각하여 유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범주 설정 기준에 따라 유형화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경험적인 검증이 필요하다(이지훈, 1993, 462-463).

이와 같이 유형화는 연속되어 나타나는 가족 현상을 비교 가능한 연구 대상으로 환원하는 연구 방법으로, 가족 현상을 왜곡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유형화 연구에서 얼마나 많은 사례들이 그 유형에 정확하게 들어맞느냐가 핵심이 된다. 따라서 유형화 방법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2. 가족 연구에서 유형화가 갖는 의미

학문은 연구 대상을 분석하고 분류하면서 시작하는데, 바로 이러한 개념적 수준에서 실재가 규정된다(McKinney, 1966, 9). 따라서 연구 대상을 유형화하는 과정은 추상적인 일반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으로, 학문적으로 개념화한다는 것은 곧 일반화한다는 것이다. 일반화를 한다는 것은 구분되는 몇 가지를 인식하면서 검증해야 하는 관계

의 수를 줄이는 것인데(McKinney, 1966, 10), 과학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관계 현상에 대한 보다 일반화된 설명을 모색하고, 수집된 최소의 관계 정보로 최대의 설명을 도모하는 간결성(parsimony)이 중요하다(Babbie, 1975, 29-45).

가족 연구 역시 복잡하고 다양한 가족 현상을 포착하면서, 그러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일반화를 추구하는 학문이다. 즉 가족 연구는 가족에 관련된 행동을 포함한 사회 현상의 복잡성을 인식하면서 주의 깊게 그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며,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가족 행동을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일련의 개념들을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유영주, 1993, 29).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유형화는 가족 연구에서도 의미 있는 연구 방법이 될 수 있다. 즉 유형화는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현상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줄이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일반화를 하는 데에는 유용한 연구 방법이 된다.

또한 가족생활의 경우 다양한 요인들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 하는 경험세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유형화는 의식의 다양한 구성요인들을 이해하는데 있어 구조적이고 역동적인 접근법 모두를 제공한다. 즉 유형화는 개인들이 자신의 내부적, 외부적 실재뿐만 아니라 생활경험을 지각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상이한 방법으로 관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단이 된다(Pedersen, 1993, 3). 따라서 가족 연구에서는 유형화가 유용한 연구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가족의 구조, 기능, 관계 등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으나 가족의 변화는 사회 변화에 비해 항상 지체 현상을 나타내므로 가족 문제 발생은 불가피한 일이 되었다(유영주, 정민자, 1993, 355). 따라서 실천적 성격을 갖는 가족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가족 문제에 맞는 가족생활 교육이나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유형화 연구 결과는 각 유형에 맞는 구체적인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 및 치료 기법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천의 장(場)에

서 의미 있는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연구에서 유형화 연구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인위적인 개념, 범주, 표준, 척도 등을 통해서 지나치게 사례를 감환(reduction)시키는 유형화 과정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사례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며 부차적 감환을 최소화하려는 질적 인식(조용환, 1999, 15)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이 시점에서는 유형화 과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족 유형화의 대표적인 초기 연구는 Cuber와 Haroff(1965)가 12년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중산층 이상의 중년부부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 연구이다. 이 연구는 결혼지속기간이 상당한, 잘 적응된 부부들도 같듯이 습관화된 부부, 생기를 잃은 부부, 소극적-공리주의적 부부, 생기 있는 부부, 전면적인 부부로 유형화 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 연구의 경우 유형화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서 재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결혼생활도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높다(Miller & Olson, 1990, 68).

한편 Olson, Sprenkle과 Russell(1979)은 유형화에 사용되는 표준화된 척도 및 유형화 방법도 제시하여 가족체계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가족 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Olson 등(1979)은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이라는 두 개념을 교차시켜 가족을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틀이 되는 순환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가족 응집력과 가족 적응력을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16개의 가족체계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가족체계 유형화를 통해 가족체계의 특성을 파악하고 진단하는데 실제적인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가족 상담 및 치료 같은 임상 분야에서 가족의 역기능적 측면을 파악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었다.

그 외 개인의 인성 특성이 갖는 복잡하고 미묘한 특성을 유형으로 파악하는 Bem의 성역할 유형(Bem Sex Role Inventory)과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도 유형화 연구의 예로 들 수 있다.

이 두 유형화 방법은 개인에게 내면화되어 있는 다차원적인 인성 특성을 그 정도에 따라 분류해서 유형화하는 것으로, 분석 차원을 구성하는 표준화된 척도와 유형화 방법을 제시해 준다.

이처럼 복잡 미묘한 가족 현상을 파악하며,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유형화가 의미 있는 연구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연구들(김소영, 옥선화, 2000; 성미애, 1999; 원효종, 1997; 이경희, 1998)을 통해 비교, 검증될 수 있는 표준화된 척도 개발과 유형화 방법에 대해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3. 가족 유형화 연구

1) 주제별로 살펴본 유형화 연구

가족 연구에서 많이 이루어진 유형화 연구는 Olson 등의 순환모델(1985)에서 제시하는 가족 응집성, 가족 적응성에 따라 가족체계 유형을 나누어서 살펴본 연구들로,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 연구들(이천숙, 이희자, 1997; 이희자, 최수경, 1999; 전귀연, 최보가, 1993, 1995; 최규련, 1998; 최연실, 1993)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 연구(최규련, 1994), 가족 스트레스 및 가족 복지와의 관계 분석(김정옥, 1995; 정민자, 1992) 등이 있다.

의사소통 유형을 통해 가족관계를 살펴본 연구도 상당수 있어서, 부부간 의사소통 유형 관련 연구들(서수경, 이정덕, 1991; 원효종, 1984; 이정순, 박성연, 1991; 이창숙, 유영주, 1988)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관련 연구들(박은주, 김경신, 1995; 이정우, 김규원, 1989)이 있다.

여가활동을 유형화해서 살펴본 연구들도 있어,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을 살펴본 연구(김애련, 한내창, 1997), 노인의 여가태도 및 여가제약 유형에 대한 연구(홍성희, 김성희, 1997)와 도시 기혼여성의 여가활동 유형을 살펴본 연구(김의숙, 이기춘, 1992) 등이 있다.

노인 부양과 관련해서 노인의 부양유형 선호에 대한 연구(김혜연, 김성희, 1999)와 분거한 도시장남 부부의 부양의식유형을 살펴본 연구(임춘희, 정옥분, 1988)가 있다.

Bern의 성역할 유형에 의거해서 결혼만족도를 살펴본 연구(김명순, 이주옥, 1988)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살펴본 연구(윤종희, 이인숙, 1993)가 있다.

그 외 대상자를 중심으로 수행된 연구로는 청소년기 자녀, 부인 또는 부부, 남성퇴직자 대상 연구 등이 있다.

청소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사회적 지지 유형(이경주, 신호식, 1997)과 부모의 학대유형(이경주, 신호식, 1998)을 살펴본 연구와 아동기 때의 부모-자녀 결합형태가 우울 성향과 연결되는 측면을 살펴본 연구(최선남, 최외선, 1995)가 있다.

또한 부인이나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의 갈등대처 유형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고현선, 지금수, 1995), 결혼유형에 따라 배우자선택 과정에서 보이는 차이를 본 연구(김진희, 김양희, 1999), 부부간의 감정적 자기노출 정도와 유형연구(변경애, 김순옥, 1994), 애착 개념을 통해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 유형과 결혼만족도 연구(유은희, 박성연, 1991)와 부부의 애착유형과 결혼적응 연구(이숙, 우희정, 노명희, 최정미, 1999), 사회관계망 다양성과 관계범주별 지배성에 따라 주부의 사회관계망을 살펴본 연구(원효종, 1997)가 있다. 그리고 부부의 감정적 자기노출 유형과 결혼만족도 연구(정은미, 김명자, 1996), 기혼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유형 연구(조성은, 문숙재, 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 유형 연구(이경희, 1998)가 있다.

그리고 남성 퇴직자를 대상으로 생활태도 유형화 및 유형별 적응도 연구(성미애, 1999)와 기혼남성의 아버지역할과 직업역할 몰입 유형화 연구(김소영, 옥선화, 2000) 등이 있다.

이처럼 가족 관련 유형화 연구들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먼저 가족체계나 결혼선택의 다양성에 주목하여 유형화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족의 내부적 특성이 보이는 다양성에 주목하여 가족체계를 응집성과 적응성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살펴본 Olson의 순환모델에 기초하여 가족체계를 구분하였다. 또한 현재 대다수가 연애결혼을 해도 그 내부적 동기는 다양하기 때문에 결혼유형

을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또한, 반복되는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고착된 유형을 살펴보기 위하여 유형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의사소통은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특징적인 유형을 갖게 된다. 따라서 반복되는 특성에 기초해서 의사소통 유형을 살펴본 연구가 많았다.

그리고 단일 차원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변수를 개념화하기 위해서 유형화 연구가 이루어졌다. 즉 여가활동의 경우 실제 참여하는 빈도뿐만 아니라 여가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러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약 등 다차원적으로 파악해야만 실재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일상생활이 다양한 삶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에 대한 태도는 다차원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변수를 교차하여 여가활동, 생활태도 등을 유형화한 연구가 있다.

마지막으로, 갈등적 요소와 긍정적 요소가 함께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 미묘한 일상생활의 역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유형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즉 갈등대처, 애착, 감정적 자기노출 등은 갈등적 요소와 긍정적 요소가 함께 작용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갈등적 요소와 긍정적 요소를 두 축으로 해서 유형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가족 연구에서는 복잡 미묘하며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진 가족 현상이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유형화를 유용한 연구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가족 연구가 가족 상담 및 치료 상황이나 가족생활교육 현장까지 포괄하면서 다양한 가족 문제에 해답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반복되는 상호작용 속에서 고착되어 나타나는 행동 유형을 파악하는 연구와, 갈등적 요소와 긍정적 요소가 함께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인 현상을 파악하는 유형화 연구가 계속 이루어질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2) 연구방법별로 살펴본 유형화 연구

유형을 나누는 방법으로는 크게 통찰력에 의존해서 분류하는 방법과 통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분류하

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통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유형화하는 방법으로는 유형화할 변수를 교차시켜 평균값이나 중앙치를 기준으로 한 유형화와 군집분석 및 요인분석을 통한 유형화가 있다.

가족 연구에서 이루어진 유형화 방법을 살펴보면, 통찰력에 의존해서 유형화한 연구는 맞벌이 부부 60쌍을 심층 면접하여 가사노동 참여에 대한 외부적 압력과 가사노동 참여에서 나타나는 자발성이라는 두 차원을 통해서 기혼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유형을 밝힌 연구(조성은, 문숙재, 1998)가 있다.

그리고 단일항목 질문을 통해 두 차원을 조합해서 살펴본 연구들(김혜연, 김성희, 1999; 원효중, 1997; 임춘희, 정옥분, 1988)과, 의사소통 척도의 하위척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하위유형을 조사대상자의 의사소통 유형으로 유형화한 연구(박은주, 김경신, 1995; 원효중, 1984), 그리고 상대적 권력과 권력의 공유라는 두 차원을 통해서 부부간 권력 점수를 비교해서 유형을 나눈 연구(윤종희, 이인숙, 1993)가 있다.

다음, 척도에서 어떤 기준점을 찾아서 유형화한 연구로, 척도의 중앙값이나 평균값을 기준으로, 기준값 이상의 집단과 미만의 집단으로 이분하여 유형화를 하였다. 먼저 중앙값을 기준으로 그 이상 집단과 미만 집단을 분리해서 유형화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Bem(1981)의 성역할 척도를 이용해서 성역할을 유형화한 연구들(김명순, 이주옥, 1988; 윤종희, 이인숙, 1993)과 부부간의 긍정적 감정 노출과 부정적 감정 노출이라는 두 차원으로 부부간의 감정적 자기노출 유형을 살펴본 연구(변경애, 김순옥, 1994; 정은미, 김명자, 1996),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이라는 두 축을 기준으로 결혼유형을 살펴본 연구(송정아, 1995), 갈등과 친밀감이라는 두 축으로 부부관계를 유형화한 연구(이경희, 1998) 등이 있다.

평균값을 기준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분리해서 유형화한 연구로는,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율성을 두 축으로 해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을 유형화한 연구(유은희, 박성연, 1991; 이정우, 김규원, 1989; 최선남, 최외선, 1995), 여가태도와 여가제약이라는 두 차원을 통해서 노인의 여가태도

및 여가제약 유형을 살펴본 연구(홍성희, 김성희, 1997)가 있다.

그리고 표준화된 유형화 공식에 따라 평균값에서 표준편차를 빼거나 더한 값을 기준으로 가족체계를 유형화한 연구들(김정옥, 1995; 정민자, 1992; 박은주, 최보가, 1995; 이천숙, 이희자, 1997; 전귀연, 최보가, 1993, 1995; 최규련, 1994, 1998; 최연실, 1993)이 있다.

다음, 다변량 통계 기법을 이용해서 유형화를 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이용된 통계기법은 군집분석¹⁾과 요인분석²⁾이다.

군집분석을 통해서 유형화한 연구들로는 직업역할 몰입과 아버지 역할 몰입이라는 두 축으로 기혼 남성의 아버지 역할과 직업역할 몰입 정도를 유형화한 연구(김소영, 옥선화, 2000), 부부간 의사소통을 유형화한 연구(이정순, 박성연, 1991), 부부간 애착을 유형화한 연구(이숙, 우희정, 노명희, 최정미, 1999) 남성퇴직자의 직업, 여가, 가족에 대한 태도라는 세 축을 교차하여 생활태도를 유형화한 연구(성미애, 1999) 등이 있다.

그러나 군집분석의 경우 집단의 수를 정하는데 있어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군집분석을 이용해서 유형화하는 경우에는 군집 수를 정하기 위해, 사례의 속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지점을 선택하거나 point-biserial, tau correlations, likelihood ratio 같은 통계 검증을 하기도 하며, 이론적인 관계를 개념화해서 연구자가 결정하기도 한다(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8, 499). 위에 언급한 연구들에서는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전체 사례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생각되는 군집의 수를 결정하였다.

한편 요인분석을 통해서 유형화한 연구들로는 여가활동 참여 인원과 활동의 강도라는 두 차원을 기초로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을 살펴본 연구(김애련, 한내창, 1997), 친밀감과 열정을 두 축으로 결혼유형을 나눈 연구(김진희, 김양희, 1999), 선행연구의 여가활동 유형화를 실증적으로 조사한 연구(김외숙, 이기춘, 1992), 부부간 의사소통 유형(서수경, 이정덕, 1991; 이창숙, 유영주, 1988), 부부의 언어 유형과

행동 유형을 교차하여 갈등대처 유형을 파악한 연구(고현선, 지금수, 1995)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이 가족 연구에서 이루어진 유형화는 Hempel(1965, 146-147; 이지훈, 1993, 161에서 재인용)의 자연적 유형화와 인위적 유형화로 나누어 분류해 볼 수 있다. 즉 Hempel은 유형화를 자연적 유형화와 인위적 유형화로 구분하면서, 자연적 유형화는 조사대상의 사례들이 갖는 기본적인 속성에 입각하여 일정한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며, 인위적 유형화는 조사대상을 분류하는 기본 기준, 즉 사례가 갖는 특징적 속성을 분류자가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조작 규정해서 범주 분류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단일 항목 척도를 교차해서 분류하거나 하위 척도 중 높은 값을 갖는 항목을 대표적인 유형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유형화 기준이 되는 척도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유형화하는 것은 자연적 유형화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사례연구를 통해 통찰적으로 분류한 연구와 군집분석이나 요인분석 등 다변량 통계 기법을 이용한 유형화는 인위적 유형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위적 유형화 작업으로 유형화한 경우에는, 제시된 유형들이 서로 배타적인 성격을 갖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타당성 검증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유형화 연구의 목적은 규정된 일련의

- 1) 군집분석은 학문 분야에 따라 Q분석, 유형화(typology construction), 분류분석(classification analysis), 수 분류화(numerical taxonomy)로 불리는데, 공통된 점은 자료 자체를 '자연스럽게' 집단화한다는 것이다. 즉 군집분석은 집단 내 동질성을 극대화하고 집단 간 이질성을 최대화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을 집단화하는데 적합한 통계 기법이다. 군집분석은 전체 표본으로부터 나온 정보를 특정적이고 보다 작은 하위집단에 대한 정보로 줄여 가는 자료 환원화 절차를 수행하면서,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고 연구 대상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는 것이다(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8, 473).
- 2) 요인분석은 변수간 공변량을 탐색하면서 분류하는 것으로, 변수들을 묶어서 몇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는가를 보여준다.

연구 대상들 사이에 있는 구조를 구분하는 것으로, 이러한 작업은 간결성뿐만 아니라 기술하는 수단이 되며, 심지어는 발견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8, 467). 따라서 유형화의 타당성에 대한 추후 검증은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견해에서 유형화의 경험적 타당성을 살펴본 방법을 고찰해 보면, 먼저 척도의 타당도가 여러 연구를 통해 검증될 정도로 표준화되었으며, 유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표준화된 방식을 제시한 경우에는 별도로 유형화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경우가 Olson 등의 순환모델을 이용해서 가족체계를 유형화한 연구들(김정옥, 1995; 정민자, 1992; 이천숙, 이희자, 1997; 이희자, 최수경, 1999; 전귀연, 최보가, 1993, 1995; 최규련, 1995, 1998; 최연실, 1993)과 Bem(1981)의 성역할 척도를 이용해서 성역할을 유형화한 연구들(김명순, 이주옥, 1988; 윤중희, 이인숙, 1993)이다.

다음, 다변량 통계 기법을 이용해서 인위적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들 중 일부(김소영, 옥선화, 2000; 김애련, 한내창, 1997; 성미애, 1999; 이숙, 우희정, 노명희, 최정미, 1999)는 유형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살펴보기 위해, 기준이 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일원분산분석과 추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요인분석은 변수 내 관계를 이해하는 도구로, 변수에 대한 군집화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8, 467-468). 따라서 분류된 각 유형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가를 요인분석을 통해 살펴본 연구들(고현선, 지금수, 1995; 김진희, 김양희, 1999; 이정순, 박성연, 1991)이 있다. 한편, 추출된 각 유형이 동일한 요인으로 구성되고 있는지를 문항의 동질성 여부를 측정해주는 내적 일치도를 통해서 살펴본 연구(이창숙, 유영주, 1988)가 있다.

그리고 두 집단이나 그 이상의 집단을 구분하는 특성을 명료화하는 다변량 통계 기법인 판별분석을 이용해서 유형화의 타당성을 살펴본 연구들(변경애, 김순옥, 1994; 유은희, 박성연, 1991)이 있다. 그 외

연구들은 유형화의 타당도를 검증하지 않았다.

이제까지의 가족 연구에서 이루어진 유형화 방법은 통찰력을 갖고서 유형화하는 방법보다는 통계적인 절차를 통해서 유형화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척도의 중앙값이나 평균값을 기준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교차시켜 유형화를 하거나 군집분석이나 요인분석 등 다변량 통계 기법을 사용해서 유형화하였다. 또한 표준화된 척도와 유형화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유형화의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각 유형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원분산분석과 추후검증, 요인분석을 통해서 한 요인으로 묶이는지를 살펴보는 방법, 각 유형이 동일한 요인으로 구성되고 있는지를 내적 일치도를 통해서 살펴보는 방법, 그리고 판별분석을 통해서 분류의 정확도를 살펴보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유형화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증하지 않은 연구들도 있다.

이처럼 유형화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유형화의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양적 연구 일변도에서 벗어나 질적 연구를 통해서도 다양한 가족 현상을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연구자 개인의 통찰력으로, 양적 분석용으로 척도화 할 수 없는 변수의 영향력이나 다차원적인 여러 변수들의 영향력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현상이 보다 더 다양해지며 임상적인 차원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연구자 개인의 통찰력에 의존한 주관적인 유형화 작업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III. 결 론

모든 조사연구 분야에서 유형화는 연구된 현상을 개념화하고 질서를 부여하는데 도움을 준다. 유형화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이점도 각 유형을 통해 전체 사례에 포함된 특성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으로, 유형화는 연구를 경제적으로 만들며, 간결화시킨다(Miller & Olson, 1990, 67).

이처럼 유형화는 기술하고 비교하며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된 일종의 개념으로, 실제 보이는 현상이 이런 형태로 경험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험 세계를 비교하고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는 유용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족의 경험세계를 이해하면서 일반화를 추구하고, 보다 추상적인 이론화를 추구하는 가족 연구에서는 유용한 연구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연구에서는 유형화 작업이 의미 있는 연구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양적인 연구 방법 일반도에서 벗어나서 질적인 연구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는 이 시점에서는, 통찰력을 이용해서 연속된 가족 현상을 인식 가능하게 분류해주는 유형화 작업이 의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유형은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선택하거나 조합한 개념이기 때문에 고정된 형태를 갖는 것이 아니다. 즉 연구 목적과 대상에 따라 유형은 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유형화하는 기준을 설정할 때 엄격성이 요구된다. 특히 유형화가 추구하는 간결화 작업은 모든 유형이 어느 정도는 구체적인 사례와 상이할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유형화의 기준 및 유형화 방법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족 연구에서 이루어진 유형화 연구를 살펴보면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갖는다. 먼저, 유형화를 위해서는 연구 대상의 분포 상태를 살펴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유형화 연구에서는 유형화되는 변수들의 분포를 제시하거나 언급한 경우가 없다. Cattell과 그의 동료들(1966: Filsinger, 1990, 97에서 재인용)은 유형화를 위해서는 유형화되는 변수들이 다(多)최빈값(multimodal)을 보이는 분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변수가 정상 분포일 때는 유형화가 정당하지 않으며, 2개 이상의 최빈값을 가질 때 각 최빈값은 하나의 유형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선정된 연구 대상은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유형을 가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앞으로 유형화하는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분포를 살펴보는 과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 유형화는 연구 대상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유형화를 위한 기준이 되는

변수의 선정 과정뿐만 아니라 유형화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표준화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그러나 표준화된 유형화 공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동일한 개념을 유형화하는 경우에도 기준이 되는 척도를 임의로 수정·보완하여 비교 검증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상이한 차원으로 유형화하여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표준화된 척도 개발 작업이나 유형화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형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유형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유형화가 잘못되는 경우에는 유형화 기준 그 자체가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여 전혀 다른 사례로 묶여 유형화될 수 있다. 따라서 유형화를 한 후에는 유형화의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군집분석을 이용해서 유형화하는 경우로, 군집분석의 경우 집단 내 차이를 최소화하고 집단 간 차이를 최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유형을 나누는 통계 기법이지만, 다른 다변량 통계 기법처럼 기준이 되는 통계적인 유의도 수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유형화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간과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반감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반화를 추구하는 것도 연구의 목적이 되는 가족 연구의 학문적 성격에서 보면, 일반화의 첫 단계로서 유형화 작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유형화는 가족 현상에 대한 기술에서 나아가 경험적 일반화를 얻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가족학 이론을 형성하는데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현선, 지금수(1995). 부부의 갈등대처유형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71-83.
- 김경동, 이은숙(1994). 사회조사연구방법. 서울: 박영사.

- 김광웅(1987). 사회과학연구방법론. 서울: 박영사.
- 김명순, 이주옥(1988). 성과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6(4), 161-172.
- 김명자(1982). 노인의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3), 45-54.
- 김소영, 옥선화(2000). 기혼남성의 아버지역할과 직업역할 몰입 유형화와 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125-139.
- 김애련, 한내창(1997).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활동이 생애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6), 275-288.
- 김효정, 김명자(1995).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 및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36-46.
- 김의숙, 이기춘(1992).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유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61-74.
- 김정옥(1995). 가족 스트레스, 가족체제 유형, 가족복지와의 관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3(3), 101-112.
- 김진희, 김양희(1999). 결혼유형에 따른 배우자 선택과정의 차이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2), 13-28.
- 김태현, 조희선(1991). 모자가족과 부부가족 간의 가족 스트레스 관련변인에 관한 비교연구. *가족학논집*, 3, 99-129.
- 김혜연, 김성희(1999). 노인의 부양유형 선호와 영향요인. *대한가정학회지*, 37(2), 85-97.
- 남현미(1999).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은주, 김경신(1995). 어머니와 청소년자녀가 지각하는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 *대한가정학회지*, 33(4), 27-38.
- 박혜인(1992). 한국사회의 도시빈민가족. *가족학논집*, 4, 157-173.
- 변경애, 김순옥(1994). 부부간의 감정적 자기노출 정도와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93-103.
- 서병숙(1989). 노후적응에 관한 연구-생활만족도 및 가족의 교류도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수경, 이정덕(1991). 부부간 의사소통 유형과 자존감 및 인구사회학적 변인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2), 199-213.
- 성미애(1999). 남성 퇴직자의 생활태도 유형화 및 유형별 퇴직후 적응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정아(1995). 한국 도시 부부의 건강한 결혼관련 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69-78.
- 신화용, 조병은(1996). 편모가 인지한 자원과 편모의 심리적 적응. *가족학논집*, 8, 57-76.
- 옥선화, 허정원(1998). 이혼한 편모의 가족 및 사회관계망 지원과 이혼 후 적응. *생활과학연구*, 23권, 37-48.
- 원효중(1984). 부부간의 의사소통양식과 의사소통불안 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효중(1997). 도시 핵가족 주부의 사회관계망 유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영주(1993). 가족학이란. *한국가족학연구회 편. 가족학*. 서울: 하우, 14-33.
- 유영주, 정민자(1993). 가족생활교육 및 상담. *한국가족학연구회 편. 가족학*. 서울: 하우, 355-394.
- 유은희, 박성연(1991).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29(1), 139-158.
- 윤종희, 이인숙(1993). 부모의 성역할유형, 부부간 권력유형과 아버지의 유아기 자녀양육 참여도. *대한가정학회지*.
- 이경주, 신호식(1997). 청소년자녀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원 및 지지유형 수준에 따른 부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15-26.
- 이경주, 신호식(1998). 청소년 자녀가 경험하는 부모의 학대유형과 부적응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6(8), 39-50.
- 이경희(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 유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논문.
- 이숙, 우희정, 노명희, 최정미(1999). 부부의 애착유형과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대안가정학회지*, 37(8), 43-54.
- 이숙현(1995). 남성의 취업과 가족 상호작용: 대기업 사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9, 271-289.
- 이숙현(1997). 전문직 남성의 일과 가족: 교수·의사를 중심으로. *남성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53-80.
- 이정순, 박성연(1991).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관한 연구. *대안가정학회지*, 29(3), 175-190.
- 이정우, 김규원(1989).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및 만족도 연구. *대안가정학회지*, 27(3), 147-159.
- 이지훈(1993). *사회과학의 메타분석방법론*. 청주: 충북대학교출판부.
- 이창숙, 유영주(1988). 한국 남편과 부인들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분류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1), 1-25.
- 이천숙, 이희자(1997). 가족체계유형 및 자아분화와 청소년 후기 자녀의 심리적 안녕. *대안가정학회지*, 35(3), 101-113.
- 이희자, 최수경(1999).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유형과 분리개별화. *대안가정학회지*, 37(8), 16-28.
- 임춘희, 정옥분(1988). 분거한 도시장남부부의 부양 의식유형. *대안가정학회지*, 28(1), 163-177.
- 전귀연, 최보가(1993). 청소년기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부모-청소년기 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안가정학회지*, 31(3), 157-173.
- 전귀연, 최보가(1995).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99-113.
- 정은미, 김명자(1996).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부의 감정적 자기노출 유형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47-64.
- 조성은, 문숙재(1998). 기혼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 유형에 관한 사례연구. *대안가정학회지*, 36(10), 35-47.
- 조용환(1999). *질적 연구-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최규련(1994). 가족체계 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40-152.
- 최규련(1998). 가족체계 유형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자녀의 심리적 복지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 120-142.
- 최선남, 최외선(1995). 가족환경변인 및 아동기 부모-자녀 결합형태가 청소년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대안가정학회지*, 33(3), 31-42.
- 최연실(1993).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체계 유형과 가족내 심리적 거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159-175.
- 최정혜(1992).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혜경, 박성연(1985).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 연구-가족부양체계를 중심으로 한 인과모형의 검증-. *대안가정학회지*, 23(1), 71-85.
- 한경혜(1996). 남성의 부모기로의 전이와 직업역할: 전이 시기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대안가정학회지*, 34(2), 231-244.
- 홍성희, 김성희(1997). 노인의 여가태도 및 여가제약 유형에 따른 여가활동참여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53-267.
- Babbie, E. R. (1975).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Belmont, CA: Wadsworth.
- Cuber, J. F. & P. B. Haroff. (1965). *The significant americans: A study of sexual behavior among the affluent*. NY: Appleton-Century.
- Filsinger, E. E. (1990). Empirical typology, cluster analysis, and family-level measurement. In T. W. Draper & A. C. Marcos. *Family variables*. CA: Sage Publications. 90-104.
- Hair, J. F., R. E. Anderson, R. L. Tatham, & W. C. Black.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5th edition). NJ: Prentice-Hall International Inc.

- Lazarsfeld, P. F., & A. H. Barton. (1951). Qualitative Measurement in the Social Sciences: Classification, Typologies, and Indices. In D. Lerner & H. D. Lasswell(eds.). *The Policy Scienc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55-192.
- McKinney, J. C. (1966). *Constructive typology and social theory*. NY: Meredith Publishing Company.
- Miller, B. C., & D. H. Olson. (1990). Types of marital interaction: using cluster analysis. In T. W. Draper & A. C. Marcos. *Family variables*. CA: Sage Publications. 67-89.
- Pedersen, L. E. (1993). *Sixteen Men: Understanding masculine personality types*. Boston: Shambhalla.